문화대혁명 시기 광서(廣西) 대학살의 실태

- 전주현(全州縣)을 사례로 -

구소영*

〈차 례〉

1. 머리말
2. 전주현(全州縣)의 '1월 탈권(奪權)'과 양대 파벌의 무력 항쟁
3. 현 혁명위원회(縣 革命委員會)의 성립과 전주 대학살의 발발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문화대혁명의 폭력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廣西 全州縣을 사례로 해서 문혁 폭력의 주체와 원인, 그리고 그 성질을 규명하고자 했다. 전주현에서 문혁의 폭력에 의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시기는 1968년 현의 새로운 권력기구가 수립된 직후였다. 이것은 문혁에 의한 폭력이 홍위병이나 조반파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폭력이나, 조반파 대중조직 간의 무장투쟁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 기존의 문혁관과 다른 성격의 폭력을 보여준다.

학살의 피해자들은 현의 권력을 놓고 서로 경쟁했던 대립파의

* 경북대학교 사학과 시간강사

성원, '四類分子'로 분류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 혁명위원회에 불만을 표시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비무장 상태였고 대규모 군중이 참여한 비판투쟁대회에 참가한 이후 처결되었다. 학살의 직접적인 가해자들은 현과 각 區·公社의 간부와 민병 등이었다.

그러나 학살이 정당화 되고 그 행위를 촉진시킨 것은 '反共救國團'과 같은 '반혁명' 조직을 날조하고 그것을 특정 파벌과 연계시켜 '적'을 실제화한 당 중앙과 자치구의 위로부터의 지시였다. 학살은 또한 1派에 의한 '배타적' 혁명위원회의 수립 등 현의 권력구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것은 중앙 정부가 지방의 문혁과 대중조직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결과이기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전주현의 집단학살은 당 중앙과 자치구, 현 이하 기층조직, 그리고 대중조직 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억압적인 정치 폭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문화대혁명, 광서 전주현, 학살, 폭력, 혁명위원회, 반공구국단

1. 머리말

문화대혁명(이후 문혁으로 약칭)의 폭력 문제는 문혁이 발발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연구자들의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문혁의 폭력에 대해서는 홍위병이나 조반파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폭력이나, 조반파 대중조직 간의 무장투쟁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문혁의 인적 피해 및 폭력의 유형을 거시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옴에 따라 기존의 문혁 이미지와는 다른

문혁의 폭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1)]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廣西 지역은 廣東과 함께 문혁에 의한 폭력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문혁에 의한 희생자 수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지만, 광서의 경우 이 기간 '비정상적 사망'이 적게는 8만 명에서 많게는 15만-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또 문혁 기간 광서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먹는 食人事件이 '보편적'으로 발생했다. 최근 공간된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에 따르면 신상이 확인된 피해자만 291명에 이른다.[3)] 20세기 중반 이웃이 이웃을 살해하고 심지어 그 시신을 훼손하여 간, 신장, 생식기 등 특정 장기를 추출하여 조리해서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다.[4)]

문혁 기간 광서에서 폭력에 의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시기는 각지에서 파벌 간 무장 투쟁이 수습단계에 들어서고 새로운 권

---

1) 宋永毅, 『文革大屠殺』, 開放雜誌社, 2002; Andrew G. Walder, "Rebellion and Repression in China, 1966-1971", *Social Science History*, vol 38, 2014; 楊海英, 『ジェノサイドと文化大革命 : 内モンゴルの民族問題』, 勉誠出版, 2014.

2) 문혁 기간 광서의 '비정상적 사망'자 수에 관해서 중국 정부 당국은 공식적으로 8만 여명으로 소개하고 있다(『當代中國』叢書編輯委員會 編, 『當代中國的廣西』, 當代中國出版社, 1992, p. 130). 그러나 1980년대 문혁의 '해결되지 않은 남아 있는 문제(遺留問題)' 처리 작업에 참가한 한 간부는 당시 어느 연설에서 省 최고지도자가 그 피해자 규모를 15만 명 이상이라고 한 말을 들었다고 한다. 宋永毅, 「序 : 廣西文革中的大屠殺和人吃人的慘劇」,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卷(전자책), 國史出版社, 2016, p. 9(* 전자책 형태로 발행된 본 자료는 쪽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쪽수는 저자가 사용한 구글 전자책 단말기에 표시된 쪽수를 표기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하 동일).

3) 宋永毅, 「序 : 廣西文革中的大屠殺和人吃人的慘劇」,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卷(전자책), p. 10.

4) 광서의 식인 현상에 대해서는 鄭義, 『紅色紀念碑』, 華視文化公司, 1993; Donald S. Sutton, "Consuming Counterrevolution: The Ritual and Cultural of Cannibalism in Wuxuan, Guangxi, China, May to July 1968",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7, 1995 등 참조.

력기구(혁명위원회)가 성립된 직후인 1968년이었다. 즉, 그것은 1966년 문혁 초기 홍위병·조반파 운동이나 1967년 조반파 대중조직 간의 무력 투쟁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 폭력을 행사했는가?

문혁 폭력의 주체에 대해 Yang Su는 광동과 광서 지역의 집단살인 문제를 비교분석한 그의 저서에서 '공동체모델(collective killings model)'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다. 그는 이 두 지역의 농촌에서 발생한 집단살인에서 국가는 학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은 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간접적인 자극에 그쳤다고 보았다. 집단살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히려 국가의 동원과 붕괴 사이에서 자기 완결적으로 존재하는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5)]

Yang Su의 연구는 통찰력 있고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불분명한 점도 있다. 그는 농촌에서 발생한 집단살인에서 그것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縣 이하 區와 公社, 촌의 지도자들로, 그들은 당시 국가나 상부 조직으로부터 이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받지 않았다. 살인은 오히려 기층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설령 학살을 집행한 사람들이 중앙 정부나 자치구 등 상급 기관으로부터 살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극단적인 폭력을 초래한 새로운 권력 기구의 수립이나 의사전쟁 상태와 같은 여론 조성, 그리고 위로부터의 극도의 압력을 과연 간접적인 자극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Yang Su가 문혁의 학살에서 국가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이해한 데는 그가 중앙과 省級, 그리고 地·縣級의 정치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층 사회의 정치 과정을 추적

5) Yang Su, *Collective Killings in Rural China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하기 어려운 자료적 한계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 문혁에서 기층 수준의 리더십과 정치 과정을 연구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공간된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6]는 그 자료적 제약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한다. 전체 36卷의 전자책 형태로 발행된 이 자료는 1980년대 중반 광서 당국이 문혁의 해결되지 않은 각종 문제를 대대적으로 조사한 이후 그 결과를 정리한 내부문건[7]을 편집한 것이다. 위로는 廣西自治區委·區政府·軍區로부터 아래로는 각 專區·縣 및 많은 농촌의 문혁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 광서 문혁의 경험뿐만 아니라 문혁의 복잡하고 다양한 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은 중앙과 지방, 대중조직의 관계에 주의해서 廣西 全州縣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을 소재로 문혁 폭력의 주체와 원인 등을 규명하고, 그 폭력의 성격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문에서 살펴볼 전주현은 광서자치구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7년 여름 4천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낳은 '도현대학살'이 발생한 湖南省 道縣과 접경을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문혁 기간 자치구 내에서 대량 학살이 가장 먼저 발생한 지역이기도 하다. 문혁 기간 전주현의 폭력에 의한 사망자 수는 2,156명으로 당시 현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했다. 이는 자치구 내에서도 비교적 상위에 든다.[8]

---

6)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36卷, 전자책), 國史出版社, 2016, 2017.

7) 中共廣西壯族自治區委員會整黨領導小組辦公室에서 편찬한 내부문건의 원제목은 『廣西文化大革命大事記』로 총 18冊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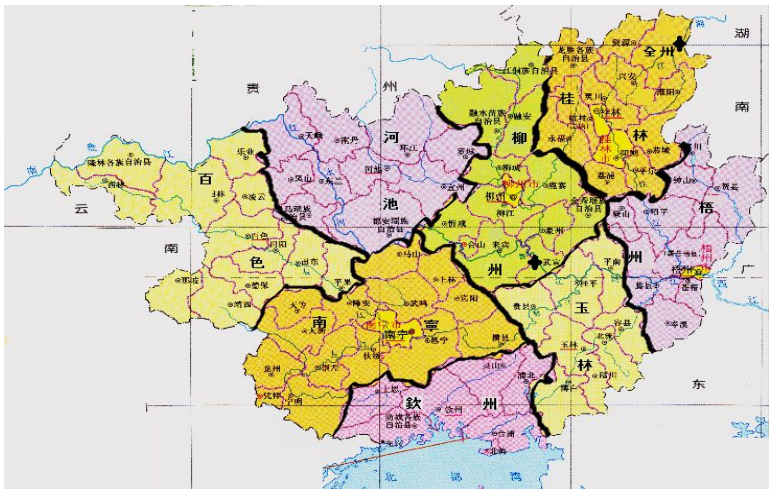
8)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의 기록에 근거하여 광서에서 문혁에 의한 사망자 수 상위 10개 縣은 다음과 같다. 貴縣(3171명), 武鳴縣(2403명), 全州縣(2156명), 臨桂縣(2051명), 上林縣(1923명), 都安瑤族自治縣(1714명), 陸川縣(1557명), 橫縣(1411명), 融安縣(1416명), 羅成縣(1389명) 등.

2. 全州縣의 '1월 奪權'과 양대 파벌의 무력 항쟁

1) '奪權'과 양대 파벌의 형성

중앙의 '5·16 통지' 이후 광서자치구에서는 1966년 6월부터 문혁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주현은 桂林地委의 지시 아래 6월 중순부터 현의 당위원회와 공작조를 중심으로 문혁이 추진되었다. 운동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의 지도부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오기 시작했다.[9] 8월 이후로 全州中學 학

〈그림 1〉 中國廣西壯族自治區 행정구획도(1965-1982)



출처: OSGeo(Open Source GeoSpatial) 中國中心, http://www.osgeo.cn/map/m029b

9)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 122.

생들로 이루어진 홍위병 조직이 만들어졌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경험교류'를 떠나기도 했다. 또 공장의 간부와 노동자로 구성된 '紅旗戰鬪隊', 현 직속 기관의 일부 간부와 성원들로 구성된 '敢闖戰鬪隊' 등 다양한 형식의 대중조직이 건립되었다. 이후 이들 대중조직은 조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 연합하기 시작했다. 당시 현에서 가장 큰 대중조직은 '홍기전투대'를 중심으로 260여 개의 조직이 연합해서 만든 '工農革命造反兵團聯合總司令部'('聯總')였다. 이들은 전주현 각 기관의 지도 간부들을 현의 '當權派'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비판·투쟁을 이어나갔다.[10]

1967년 上海의 '1월 奪權'의 폭풍은 전주현에도 영향을 미쳤다. 1월 27일 '聯總' 지도자 蔡輝龍과 唐述介 등은 '奪權行動委員會'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 현의 권력 쟁취에 나섰다.[11] 이로 인해 전주현의 각급 당·정 기관이나 학교 등은 그 모든 업무가 마비되었다. 중국인민해방군과 전주현 인민무장부는 1967년 3월, '탈권'으로 생긴 무정부상태를 이어받아 소위 '軍 支左' 정책[12]에 따른 군사 관제를 시작했다. 이들은 '抓革命·促生産指揮部'('抓促指揮部'로 약칭) 사무실을 설치하고, 당과 정부의 업무를 대행함과 동시에, 역시 직능 기능이 마비된 공안·검찰·법원을 접수

10) 全州縣誌編纂委員會, 『全州縣誌』, http://lib.gxdqw.com/view-c45-5.html 2018년 3월 10일 접속.

11)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p. 123-124.

12) 1967년 1월 23일, 당 중앙은 '三支兩軍'(支左·支工·支農, 軍管·軍訓) 방침을 지시하여 군대가 적극적으로 '혁명적 좌파' 대중조직의 '탈권'을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방침에 따라 군대는 현지의 문혁에 개입하게 되었다. 「中共中央·國務院·中央軍委·中央文革關於人民解放軍堅決支持革命左派群衆的決定」 Song YongYi, *Chinese Cultural Revolution Database* (Published by Universities Service Centre for Chinese Studies, 2006 (Second Edition), 이후 CCRD로 약칭) 수록.

관리했다.[13]

그러나 군사 관제는 전주현의 질서를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혼란을 야기 시켰다. 당 중앙의 방침에 따라 이 임시 권력기구는 여러 대중조직 가운데 '혁명적 좌파' 조직을 선별해야 했다. 하지만 '혁명적'이라고 하는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각 대중조직의 '혁명성'을 가리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軍分區나 인민무장부 등 군대 세력과 공생 관계에 있거나,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중조직이 현의 새로운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14]

당시 전주현의 '抓促指揮部'는 여러 대중조직 가운데 '聯總'을 '혁명적 좌파'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혁명적 좌파' 조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다른 여러 조직들은 인민무장부의 이런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고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 무렵 광서자치구의 省都인 南寧에서는 조반파 대중조직 사이에서 일명 '廣西王'으로 불리며 자치구 내 거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자치구 제1 書記 韋國清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간의 대립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었다. 韋國清은 廣西壯族 출신의 장군으로 1930년대 '大長征'에 참가했으며, 1950년대 초기 프랑스-베트남전쟁 때 중국 군사고문단의 단장으로 참전하여 베트남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韋國清이 광서성 군 분구 제1 정치위원을 맡게 된 것도 이런 전적에 의한 것이었다.[15] 문혁이 시작되자 그는 홍위병과 조반파 조직에 의해

13)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 124.

14) 구소영, 「문화대혁명 시기 농촌의 파벌투쟁-湖南省 道縣을 사례로」, 『인문연구』 79, 2017, pp. 79-81.

15) 賴兆年, 「廣西與越南抗法戰爭研究(1950-1954)」, 廣西民族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

광서 제1의 '當權派'로 지목되어 그 권한이 모두 정지된 상태에 있었다. 그런 가운데 1967년 4월 19일, 자치구 서기처 서기 伍晉南이 '反韋國清'을 주장하는 조반파 측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광서 자치구 내 대중조직은 韋國清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재편되었다.[16]

남녕시의 이런 분위기는 자치구의 다른 지역에도 그대로 전달되었고 전주현도 예외가 아니었다. 5월 13일 전주고등학교와 위생학교의 일부 학생들은 '5·13 火線指揮部'('5·13'으로 약칭)를 조직하고 자치구와 현의 정치 형세를 비판했다. 이후 '全州工人造反兵團', '縣人委聯合造反兵團', '縣委會聯合戰鬪兵團', '東方紅戰鬪兵團' 등의 대중조직이 '5·13'과 뜻을 같이했고, 이들은 '聯合造反大軍'('조반대군'으로 약칭)이라는 조직을 성립했다. 그 지도자는 周宗榮, 唐述介, 伍耿松, 柳利華, 唐定國, 廖顯德, 蔣廷佑, 李洪, 蔣太槐 등이었다.[17] '조반대군'은 주로 학생, 노동자, 그리고 일부 기층조직의 간부들로 구성되었고, 광서 전역에 비슷한 관점을 가진 조직이 있었다.[18]

한편, '조반대군'과 관점을 달리하는 '紅衛兵總部', '工農革命造反兵團聯合總司令部' 등도 7월 초 '全州縣無産階級革命派聯合指揮部'('연지'로 약칭)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그 주요 지도자는 蔡輝龍, 唐咸明, 白先桐, 唐致智, 龍全忠, 蔣文, 色振芳, 楊屏清, 雷秀, 唐祖源, 黎明强 등으로,[19] 이들은 '1월 탈권' 이후 현 인민무장부 등

16) 申曉雲, 「文革中槍桿子裡面出革委會-廣西"武鬥"眞相」, 『當代中國硏究』 20, 2013, p. 147.

17)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 124.

18) 南寧의 '4·22', 柳州의 '造反大軍', 桂林의 '老多' 등 그 명칭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19)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 124.

군대 세력의 지지를 받은 '1월 탈권의 승리자'였다. 현의 임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인민무장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만큼, 현 관할 아래 있는 거의 모든 농촌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韋國淸을 지지하는 보수파로, 역시 광서 전역에 조직망을 갖추고 있었다.

1967년 7월 전주현의 많은 조반파 대중조직은 이렇게 '연지'와 '조반대군'으로 재편되었다. 이들은 현의 새로운 권력 재편을 앞두고 누가 더 '혁명적'인가를 다투었고, 그 경쟁은 '文鬪'에서 점차 유혈의 무력 항쟁('武鬪')으로 발전했다.

2) 파벌 간 무력 항쟁과 東山區 갱살사건

1967년 7월 이후 전주현의 '연지'와 '조반대군' 간 대립이 무력 항쟁으로까지 발전한 데는 두 조직의 세력이 비슷하여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지만, 당 중앙의 정책도 중요한 작용을 했다. 1967년 '武漢 7·20사건' 이후 毛澤東은 대중조직 간 세력 균형을 위해 대중조직의 무장을 허용하는 '左派武裝' 정책을 결정했다.[20] 이후 각지에서 실제로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나 무장부에서 '좌파'조직에 무기를 지급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각 대중조직은 파벌 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소재지나 인근 지역 군대와 인민무장부의 무기고를 습격하여 그 무장을 강화했다.

이렇게 중국 각지에서 '1월 탈권' 이후 대중조직 간 파벌 대립이 격화되자 당 중앙은 이를 중재하기 위해 각 파벌의 대표자들을 北京으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 대립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그런 사이 자치구 내 파벌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다. 8

20) 丁凱文, 『解放軍與文化大革命』, 明鏡出版社, 2013, pp. 147-149.

월 10일 桂林地區의 '조반대군'이 인민무장부의 무기고를 습격하여 대량의 총기를 약탈한 사건이 발생했다.[21] 이에 전주현의 '조반대군' 측도 즉시 행동에 나서 8월 17일 현 인민무장부의 총기를 탈취했다. 이 소식은 들은 '연지' 측도 그날 밤 즉시 인민무장부, 공안·검찰·법원 등지에 보관 중이던 각종 총기 270여 자루와 탄두·탄약 2만여 발 등을 강탈해갔다.[22]

이렇게 1967년 여름 전주현의 '연지'와 '조반대군'은 소재지 군대의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장을 강화하고 상대방의 거점을 포위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으로까지 발전했다. 현 관할 각 區와 公社, 촌을 장악하고 있던 '연지'는 각지의 민병을 동원하여 세무서나 區公所 등 주요 거점에 경계 병력을 배치했다. 또 '조반대군'의 기습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관할지 농민을 함부로 수색하고 체포하기도 했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은 곧 유혈 충돌로 이어졌다.[23]

당 중앙은 1967년 9월 중국 전역에서 격화되고 있는 파벌 간 무장 투쟁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9·5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서는 각지의 파벌 조직이 군대의 무기와 장비, 각종 군용 물자를 불법으로 강탈하는 행위를 엄금했으며, 이미 강탈해간 군대의 무기와 물자를 정한 기한 내 반납할 것을 지시했다.[24] 이에 대해 전주현의 두 조직은 '9·5 명령'의 집행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가두시위를 벌이며 여론 조성에 나서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무력 충

21) 中共桂林地委整黨領導小組辦公室編, 「桂林地區"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p. 42-44.

22)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p. 124-125.

23)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p. 124-125.

24) 「中共中央國務院中央軍委中央文革小組關於不准搶奪人民解放軍武器, 裝備和各種軍用物資的命令」(1967.9.5.) CCRD 수록.

돌이 발생하여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다.[25]

이렇게 전주의 양대 파벌 간 대립이 무장 투쟁으로 격화되고 있을 무렵, 전주현의 농촌에서 많은 농민이 집단적으로 학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살은 현의 동남쪽에 위치한 東山區(현재 東山瑤族鄕)의 三江公社에서 일어났다. 일명 '동산구 갱살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 76명의 농민이 집단 생매장되었다.

학살은 공사의 민병 대대장 黃天輝[26]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 10월 2일 밤 東山區의 치안주임, 회계, 민병 소대장 등 간부 30여 명이 회의를 열고 '四類分子'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여기에서 黃天輝는 이웃하고 있는 湖南省 道縣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도현의 四類分子들이 일부 간부와 군중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처결되었다"고 하며,[27] 東山 지역에서도 '四類分子'들이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黃天輝가 전한 도현 소식은 '도현대학살' 사건으로, 1967년 8월과 9월 사이 호남성 도현의 양대 파벌인 '紅聯'과 '革聯' 간 무력 투쟁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던 시기에 도현을 비롯해서 江華, 永州 등에서 4500여 명의 농민이 살해되었다.[28] 이 사건은 문혁 시기 단일 지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가운데 피해자 규모가 가장 큰 사건으로, 인민해방군이 현에 주둔하고서야 사태가 수습되었다.

黃天輝가 전한 도현 내 '四類分子'들이 현의 일부 간부와 빈농을 살해하려고 계획했다는 '죄행'은 1980년대 중반 도현 당국이 실시

25)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辦公室編, 「全州縣"文革"大事件」,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7卷(전자책), pp. 19-21.

26) 黃天輝는 1983년 당 중앙과 자치구 당위가 진행한 문혁의 남아 있는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산갱살' 사건의 주모자로 그 죄가 엄중하다고 하여 1985년 1월 사형에 처해졌다.

27)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辦公室編, 「全州縣"文革"大事件」,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7卷(전자책), p. 18.

28) 구소영, 앞의 논문, pp. 91-93.

한 문혁이 남긴 문제를 처리하는 조사 과정에서 모두 날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이런 여론은 '도현대학살'의 피해자들이 처결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그것은 또 省의 경계를 넘어 東山 지역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三江公社 간부 중에는 '四類分子'와 그 가족들을 모두 처결하는 데 우려를 표하며 상부에 관련 지시를 청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29]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은 결국 스스로 학살과 그 살해 대상 및 절차 등을 결정했다. 이후 그들은 민병을 동원하여 곧바로 살인을 집행했다. 10월 3일 새벽, 잠을 자고 있던 '四類分子'와 그 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포박되어 산 위 구덩이로 끌려갔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도 했지만 그들의 간청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덩이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해서 하룻밤 사이에 76명의 사람들이 모두 살해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남자가 44명, 여자가 32명이었고, '지주'로 분류된 사람이 16명, '부농'이 5명,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55명이었다. 그 가운데는 돌이 채 안 된 아이도 있었고 일가족 9명이 모두 살해된 경우도 있었다.[30]

이 갱살사건은 문혁 시기 전주현에서 일어난 최초의 집단학살로, 현의 양대 파벌 간 대립이 무력 충돌로까지 격화된 시기에 관할 농촌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당시 동산구에서 '연지'와 '조반대군' 간 무력 투쟁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학살과 관련해서 상부의 직접적인 지시나 명령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동산 지역의 간부들은 왜 '四類分子'와 그 가족을 집단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까? 여기에는 그 이전까지 동산

29)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件」,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7卷(전자책), p. 18.

30)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件」,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7卷(전자책), pp. 18-19.

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던 여러 갈등과 모순, 예를 들어 가해자와 피해자 간 사적 원한이나 여러 민족이 혼거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민족적 갈등, 또는 중국 남부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역사적 모순 등 그동안 누적되어 온 다양한 사회적·민족적·역사적 요인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입수한 자료에서는 이에 대한 유의미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그 외 중국공산당의 관료체계와 문혁 이전 여러 정치운동의 경험을 비추어본다면, 학살은 東山區 내 간부들이 선택한 정치적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문혁 전까지 약 17년 동안 부단히 거듭된 각종 정치운동을 통해서 지방 기층사회의 간부들은 관료조직체계의 제한된 직위 내에서 간부 개인의 승진과 좌천은 제로섬게임과 같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관료조직 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좌천'의 위험을 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혹은 단위)과 차별되는, 또는 이전의 운동에서와는 다른 형태로 자신의 '혁명성'을 증명해 보여야 했다. 공동체 내에서 공인된 '계급적 적'인 '四類分子'에 대한 집단 살해는 라이벌 조직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이웃에서 대학살의 소식이 전해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학살이라고 하는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자신들의 '혁명성'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1967년 10월 동산구의 집단 학살은 Yang Su가 제안한 '공동체 모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집단갱살의 피해자 규모는 문혁 기간 현 전체의 사망자 수와 상당한 편차가 있다. 아래에서는 파벌 간 대립이 수습되고 새로운 권력 기구가 수립된 이후 전주현의 문혁 과정과 폭력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3. 縣 革命委員會의 성립과 全州 대학살의 발발

1) '배타적' 혁명위원회[31]의 성립

1967년 11월 8일 광서자치구의 양대 파벌인 '연지'와 '조반대군'은 周恩來의 중재 아래, '대연합'을 통해 자치구의 새로운 권력기구를 수립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양측은 무장 투쟁을 멈추고, 각각의 무장을 해제하며 협의를 통해 조속히 혁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했다.[32] 그리고 이를 추진할 자치구혁명위원회주비소조가 당 중앙의 비준을 받았다. 또 1968년 1월 광서자치구혁명위원회주비소조와 군분구는 광서 농촌에서 '빈농·하층중농 최고인민법원' 또는 '빈농·하층중농 반혁명분자 진압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함부로 사람을 체포하고 살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33] 전주현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1968년 3월 주둔하고 있던 1049부대의 중재 아래 '연지'와 '조반대군' 사이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졌다. 두 파벌의 대표는 무장투쟁을 멈추고 합의를 통해 현의 새로운 권력기구를 수립할 것을 선언하였다.[34] 이렇게 1967년 말과 1968년 초 광서와 전주현에서는 문혁의 파벌주의에 따른 혼란

---

31) '배타적' 혁명위원회라는 표현은 谷川眞一의 연구에서 빌려온 것이다. 그는 陝西省 농촌의 문혁 폭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현 수준의 정치과정과 권력 구조, 특히 군대의 문혁 개입 구조에 착안하여 문혁의 폭력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谷川眞一, 『中國文化大革命のダイナミクス』, 御茶の水書房, 2011 참조.

32) 「中共中央·國務院·中央軍委·中央文革關於廣西兩派促進革命大聯合十條協議的批語」(1967.11.12.), CCRD 수록.

33) 「取消貧下中農最高人民法院等組織的緊急通知」(1967.12.24.), 中共廣西壯族自治區委員會整黨領導小組 編, 『文革機密檔案-廣西報告』, 明鏡出版社, 2014, p. 190.

34)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p. 125-126.

이 수습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두 달 뒤 현의 혁명위원회가 성립되자 전주현은 전에 없는 극심한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1968년 5월 8일 마침내 전주현의 새로운 권력기구인 현 혁명위원회가 수립되었다. 그 주요 지도부는 龐人軍(현 인민무장부 부장), 蕭含艷(구 현위 서기), 張鳳先(현 인민무장부 政委), 吳鼎(구 현위 부서기), 郭景臣(현 주둔 1049부대 부주임), 盤俊(東山區委 서기), 唐硯臣, 唐良松, 謝純吉, 李文友, 李隆松 등으로 구성되었다. 주임은 龐人軍, 부주임에는 蕭含艷, 그리고 張鳳先, 吳鼎, 盤俊 등이 임명되었다. 혁명위원회 상임 위원은 상술한 인원과 王可欽과 唐咸明('연지' 지도자), 그리고 임시 결원 6명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되었다.[35]

현의 신생 혁명위원회는 표면적으로는 '3결합'의 원칙에 따라 군 대표와 '혁명적' 간부 대표, 그리고 대중조직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실제 권력은 현의 임시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인민무장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연지'계가 장악하게 되었다. 위에 열거한 혁명위원회 상임 위원 가운데 대부분이 '연지'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고, 또 6명을 임시 결원 상태로 두는 방식 역시 라이벌 파벌을 권력에서 배제시키는 위해 자주 사용되는 수법이었다.

혁명위원회의 인선은 당시 현의 임시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인민무장부가 책임지고 있었다. 특히 이를 위해 인민무장부는 3월에 '제3 판공실'이라는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고 현 직속 기관과 각급 단위에서 올라온 혁명위원회 인선 명단을 심사하고 선별했다. 이 '제3 판공실'은 혁명위원회가 수립된 이후에는 현 혁명위원회 '제3 판공실'로 그 이름을 바꾸었고, 6월에는 군분구의 지시에 따라 판공실 아래 각각 '敵僞檔案組'와 '專案組'라는 조직을 증설했다. 전

35)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 127.

자는 주로 소위 '반혁명분자', '반역자', '간첩', '자수해온 사람',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등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행적과 언론을 조사했고, 후자는 문혁 이래 '당권파'로 지목된 舊 현위·인위의 간부들을 주로 심사했다.[36] 따라서 '제3 판공실'은 현의 주요 간부나 성원들의 각종 역사적·정치적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상당한 자료들을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었다. 당시 이 업무를 총괄한 사람은 인민무장부 政委 張鳳先, 東山區委 書記 盤俊, 唐咸明 등으로, 이들은 '연지' 지도자이거나 '연지'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즉, 혁명위원회 인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간부 심사의 절차를 '연지'측 또는 그들과 공생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관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의 주요 권력은 자연스럽게 '연지'계에 유리하게 재편되었고 라이벌인 '조반대군'은 주요 권력에서 점차 밀려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생 혁명위원회의 '합법성' 문제로 '연지'와 '조반대군' 간 파벌 경쟁이 다시 격화되었을 때 '제3 판공실'에서 입수한 자료는 특정 파벌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데 쉽게 이용될 수 있었다. 문혁 기간 많은 무고한 피해자를 낳은 '全州·灌陽地下黨·遊擊隊' 사건도 이렇게 날조되었다.[37]

전주현의 새로운 권력을 놓고 줄곧 경쟁해왔던 '조반대군'은 이런 '배타적' 권력 기구의 수립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들은 "독단적으로 처리된 혁명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집단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이것은 계림지구의 파벌 투쟁에 현이 말려들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

36)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p. 126-127.

37)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 126.

2) '反共救國團' 사건과 '전면 내전'

1968년 4월 21일 광서자치구혁명위원회주비소조는 계림전구의 혁명위원회의 성립을 비준했다. 계림전구 혁명위원회 역시 군대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당·정 기관의 간부와 대중조직의 대표로 구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지'계가 독점했다.[38] 이에 '조반대군'측은 전구의 혁명위원회는 "혁명 군중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軍分區가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수립된" 것으로, "毛주석의 혁명노선에 서 있는 혁명적 지도 간부와 베테랑 조반파를 배제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현 혁명위원회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했다.[39] 이와 같은 전구의 신생 권력 기구를 둘러싼 찬반 갈등은 두 파벌 간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쌍방은 새롭게 거점을 마련하는 등 무장 투쟁에 대비했다.

5월 12일 계림전구의 '연지' 대표는 신생 정권을 지키고 무장 투쟁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전구 관할 내 12縣에 무장 지원을 요청했다. 그들은 "현재 계림에 10여 명의 국민당 장군 출신 군관이 조반대군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당 중대장급 사람들이 이미 연대를 조직하여 文化宮에 집결하고 있다"고 당시 전구의 상황을 전했다. 이에 각 현에서 농민과 민병 등을 동원하여 무장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40]

전구의 '연지'대표는 새로 수립된 혁명위원회의 인선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기하는 '조반대군'측의 행위를, 공산당 정권을 전복하려는 국민당 잔당 세력의 도발과 연계시켰고, 계림전

38) 中共桂林地委整黨領導小組辦公室編, 「桂林地區"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 44.

39) 中共桂林地委整黨領導小組辦公室編, 「桂林地區"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 44.

40) 中共桂林地委整黨領導小組辦公室編, 「桂林地區"文革"大事件」,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6卷(전자책), p. 108.

구의 혁명위원회가 그런 '적'의 조직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강조했다. 즉, '연지' 대표들은 정권을 둘러싼 파벌 간 대립을 '반혁명' 세력의 조직적인 도발로 격상시키고 계림의 위기 상황을 극대화했다. 이것은 그들의 파벌 간 무장 투쟁에의 재 참가나 주변 현으로부터의 무장 지원을 '합법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주요 근거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을 조성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다. 20세기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를 연구한 벤자민 발렌티노에 따르면, 전쟁, 혁명, 경제적 대공황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은 소수 집단에게 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기제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즉, 국가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는 것은 정치권력을 공고히 하거나 특정 이데올로기를 이행하려고 모색하는 특정 집단에게 그런 기회와 구실을 준다는 것이다.[41]

사실 1967년 중반 이후 당 중앙은 문혁 파벌주의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대중조직 간 무장 투쟁과 이를 위한 주둔 군대의 무기를 강탈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농민을 동원하여 도시의 무장 투쟁에 참가시키는 것 역시 금하고 있었다.[42] 게다가 두 파벌은 혁명위원회의 성립을 위해 무장 투쟁의 정지 및 무장 해제 등을 서로 약속한 '대연합'을 선언한 바 있었다.[43] 이런 상황에서 전구 '연지' 대표의 파벌 간 무장 투쟁의 참여나 무장 지원 요청은 엄격하게 말하면 중앙의 명령 위반이자 양측 간 합의 사항을 파기하는 행위였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위원회와 '연지' 측은 '국민당 잔당 세력'과 같은 '반혁명적' 세력을 라이벌 '조반대군'측과 연계함으로써, 이들과의 무장 투쟁이나 각 현으로부터의 무장 지원을 '정당

41) 벤자민 발렌티노 지음, 장원석・허호준 옮김, 『20세기의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p. 57.

42) 「中共中央關於禁止挑動農民進城武鬥的通知」(1967.7.13.), CCRD 수록.

43) 「廣西兩派關於立卽停止武鬥的協議」(1967.8.26.), CCRD 수록.

화'하여 '조반대군'측과의 무장 투쟁을 조기에 수습하고자 했다. 당시 계림전구 '연지'측 대표의 이런 상황 인식은 자치구의 정치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南寧市에서는 특정 '반혁명' 단체가 '주자파', '五類分子', '간첩' 등과 협력하여 몰래 '조반대군'측에 잠입해서 조직적으로 '반동'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치안 유지를 위해 규찰대가 조직되었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44]

한편, 계림전구의 '연지'측이 무력 지원을 요청한 만큼 전주현은 관할 區와 公社, 그리고 촌에서 민병과 농민을 동원하여 전구로 들어가는 문제를 논의해야 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의 혁명위원회가 계림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경계해야 했다. 이미 대립파인 '조반대군'이 신생 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장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현 바깥의 동 조직과 협력하여 혁명위원회를 부정하는 여론이 힘을 받을 경우 그들의 미래 역시 보장할 수 없었다. 이에 5월 중순 혁명위원회의 주요 간부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이것을 실각된 舊 현위 간부들과 일부 사람들이 파벌주의를 조장한 결과로 보았다. 이에 현의 주요 기관에서는 소위 '三右(右傾 翻案, 右傾 분열주의, 右傾 투항주의) 반대' 운동을 실시하고 각 기관의 간부와 구성원들이 '조반대군'측에 동조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일부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四類分子'를 내세워 비판·투쟁하는 방식의 대규모 군중대회를 열고, "이들 계급적 적이 홍색 정권을 전복하려고 한다"고 선동함으로써 현의 여론을 주도할 것을 주장했다.[45]

이런 가운데 광서 전역을 경악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즉, "蔣介石 악당의 中華民國 反共救國團 廣西分團"의 단장을 비롯한 그 주

44) 中共廣西壯族自治區委員會整黨領導小組 編, 앞의 책, p. 241.

45)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p. 127-128.

요 성원 63명이 체포되었다고 하는 소위 '反共救國團' 포획사건이 일어났다. 광서자치구혁명위원회주비소조와 광서 군구가 중공중앙·중앙군위·중앙문혁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 단체는 1968년 2월 2일 정식으로 성립되었으며, 南寧市와 南寧·玉林·欽州·柳州 등 4개 地區에 특히 많이 퍼져 있었다. 본부는 南寧의 '4·22(조반대군)'가 통제하는 구역에 있고 '4·22'의 거점을 주요 연락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이들은 대중조직의 파벌주의를 이용하여 세력을 확장하며 무장투쟁을 통해 무기를 확보했다. 이번에 체포된 사람은 단장 1명, 부단장 3명, 정치부 주임 3명, 연락소 책임자 6명 등 63명이며, 조직적인 '반당' 활동의 증거로 강령과 간행물, 입단 등록명단, 인감, 국외 간첩기관과 연락하는 비밀통신 주소, 그리고 약간의 총기 등을 확보했다고 보고했다.[46]

이 사건은 1980년대 중반 자치구 당국에 의해 광서군구가 날조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당시 광서자치구와 광서군구가 이 사건을 자발적으로 날조한 것인지 아니면 당 중앙이나 문혁파 세력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혁 당시 자치구혁명위원회주비소조와 군구에서는 이들 '反共救國團'이 광서 전역에서 활동하고, 특히 '4·22(조반대군)' 대중조직에 몰래 잠입해서 그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각지의 혁명위원회와 군분구는 이에 대한 경계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 또 각지에서는 이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고, 군중을 동원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관련 세력을 '색출'해낼 것을 지시했다.[47]

계림전구에서는 5월 말 興安縣에서 군분구의 주최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전주현에서도 唐咸明, 吳鼎·陶連發 등 혁명위원회 일부 지도자들이 참석했다.[48] 회의에서 군 분구 지도부는

---

46) 中共廣西壯族自治區委員會整黨領導小組 編, 앞의 책, p. 248.
47) 中共廣西壯族自治區委員會整黨領導小組 編, 앞의 책, p. 250.
48)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

자치구의 '反共救國團' 소식을 전하며, 각지에서 특별히 계급투쟁에 주의할 것, 필요한 경우 '계급적 적'에 대한 감금·통제·살해를 집행할 것, 이를 각 현에 전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49] 이 회의는 사실상 당시 농촌에서 대표적인 '계급적 적'으로 간주되고 있던 '四類分子'에 대한 살해를 승인하는 것과 같았다.

전주현 지도부는 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농촌에서의 계급투쟁 문제와 계림전구의 무장투쟁을 위한 파병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6월 3일 區의 무장부장회의에서 唐咸明은 "계림이 '해방'될 때 약간의 국민당 잔당 세력이 숨어 있었는데, (이들은 현재)사정을 잘 모르는 군중을 선동하여 군 분구와 전구의 혁명위원회를 공격하고 있다"고 한 후, 현 혁명위원회는 '홍색 정권'을 지키기 위해 전구의 무장 투쟁에 병력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렸다. 이후 605명으로 구성된 전주현 민병단이 6월 5일 계림전구의 파벌 무장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구로 들어갔다.[50] 이때 군 분구와 전구의 '연지'측의 요청을 받고 계림으로 들어간 전구 12현의 병력은 약 8000여 명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시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던 '조반대군'은 "毛主席을 보위한다"는 이름의 지휘부를 새로 구성하고 사령부, 정치부, 대외 연락부, 병기부 등을 새롭게 설치하며 무장 투쟁에 대비했다. 또 6월 초에는 군 분구의 무기고를 습격하여 각종 총기 3300자루, 탄두 250발, 수류탄 3000여 발, 75mm 포탄 7500여 발 등을 강탈하여 무장을 강화했다.[51] '연지'

西文革機密檔案資料』19卷(전자책), pp. 127-128.

49) 中共桂林地委整黨領導小組辦公室編, 「桂林地區"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19卷(전자책), pp. 44-45.

50) 中共桂林地委整黨領導小組辦公室編, 「桂林地區"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19卷(전자책), p. 45.

51) 中共桂林地委整黨領導小組辦公室編, 「桂林地區"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19卷(전자책), p. 45.

측도 "계림지구 혁명위원회를 보위한다"는 이름의 총지휘부를 설치하고, 조반대군에 무조건적인 무장 해제를 요구하며 이를 어길 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반대군 측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52] 조반대군 측에게 이런 경고는 더 이상 의미 없었다. 마침내 두 파벌은 1968년 3월 무장 투쟁을 중지한다는 '대연합'의 약속을 파기하고 '전면 내전'에 나서게 되었다.

전구의 군분구와 관할 현의 무장 세력의 지원까지 받은 전구의 '연지'는 남북 협공 작전을 펼치며 '조반대군'의 주요 거점을 압박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다. 그들은 그 원인이 무기 부족에 있다고 보고, 12현의 민병과 계림시 '연지' 성원, 그리고 柳州鋼鐵의 일부 '연지' 성원들까지 합세해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5일 연속해서 해방군 453부대의 무기고를 습격했다. 이것으로 '연지'측은 각종 총기 5636자루, 탄피 325만 발, 각종 대포 61문, 포탄 11000발, 수류탄 124000여 발, 폭약통 114개, 그리고 각종 군수물자를 포함하여 상당량의 무기와 물자를 획득했다.[53]

이렇게 1968년 상반기 혁명위원회를 둘러싼 파벌 간 정치 갈등은 다시 '전면 내전' 상황으로 발전했다. 혁명위원회가 성립된 이후 다시 전개된 파벌 간 무장 항쟁은 1967년 '9·5 명령'을 발표한 이래 각지의 파벌 간 무력 충돌을 저지하고 새로운 권력기구를 조속히 수립하여 질서 회복과 사회 안정을 꾀하려던 중앙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리는 것이었다. 이런 파벌 간 '전면 내전'의 상황은 전주와 계림만의 일은 아니었다. 혁명위원회가 수립된 자치구 내 많은 지역에서 파벌 간 무장 투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었다. 당 중앙으로서는 광서의 이런 대중조직 간의 무장 투쟁이 광서성의 경

52) 中共桂林地委整黨領導小組辦公室編, 「桂林地區"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 45.

53) 中共桂林地委整黨領導小組辦公室編, 「桂林地區"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p. 45-46.

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전국이 다시 문혁 파벌주의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을 극도로 우려했다. 당 중앙의 인내도 서서히 한계에 다다랐다.

3) 중앙의 '7·3 포고'와 全州 대학살의 발발

계림전구의 파벌 무장 투쟁이 심상치 않게 진행되는 가운데 전주현 혁명위원회는 "전선과 보조를 맞추며 후방을 공고히 하는" 조치를 취했다. 6월 6일 현 혁명위원회는 전주현의 치안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全州民兵治安糾察隊'를 조직했으며 이들에게 무기를 지급했다. 각 區와 공사에도 규찰대가 속속 성립되었다. 이들 규찰대는 전구의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전주현에 몰래 잠입한 '계급적 적'을 색출하고 그들의 활동을 저지한다는 명분 아래 관할 농촌의 주요 거점마다 초소를 설치하고 검문을 강화했다. 주민들의 집을 마구잡이로 수색하고 재물을 몰수하는가 하면 함부로 사람을 체포하고 감금했다. 그 중에는 혹독한 박해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54]

6월 중순 광서군구로부터 '反共救國團' 광서분단의 포획에 관한 소식과 관련 지시를 받은 각지의 혁명위원회와 인민무장부, 그리고 '연지'측은 '反共救國團'을 성토하는 대규모 군중대회를 열고, '조반대군'이 그 조직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다.[55] 6월 23일 전주현 인민무장부는 현 혁명위원회 상임위원과 각 區의 혁명위원회 및 무장부장들이 참가하는 긴급 전화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서 인민무장부는 "지주·부농,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사람들을 단호하게 비판하고, 숨어 있는 '온갖 추

54)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 128.

55) 中共廣西壯族自治區委員會整黨領導小組 編, 앞의 책, pp. 264-265.

악한 세력(牛鬼蛇神)'을 색출하여 '군중 전정'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56]

이어 각지에서 대규모 군중대회가 열렸다. 6월 26일 廟頭區 仁街公社에서는 공사 간부와 민병대장의 지휘 아래 胡宗陶와 胡光婉 등 12명에 대한 비판투쟁이 이루어졌다. 지서 蔣正生은 공사의 계급투쟁 상황을 설명하며, '지주'와 '부농'들이 '반혁명' 단체를 조직하여 당원, 간부, 그리고 빈농과 하층 중농을 차례로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胡宗陶의 집을 수색하던 중에 발견한 '반혁명 연락도'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胡宗陶는 날조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비판투쟁대회가 끝난 후 胡宗陶를 비롯한 12명은 산비탈 탄갱에서 공사 간부와 규찰대원들에 의해 집단 살해되었다.[57]

학살은 계림지구에서 '연지'측의 남북 협공이 실패하자 더욱 격화되었다. 협공이 실패한 직후 전주현 혁명위원회는 첫 3級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혁명위원회는 특별히 "계급투쟁 전람회"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각지의 '살인 경험'을 소개했다.[58] 이 회의는 사실상 전주현 집단학살에 대한 지시와 같았다. 文橋區의 일부 공사 지도자들은 회의 기간에 각지의 '살인 경험'을 접한 후 즉시 관할 지역에 전화를 걸어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을 처결할 것을 지시했다. 그 결과 회의 기간에만 38명이 총살당했고 이후 10일 동안 93명이 총살되거나 맞아 죽었다. 7월 4일 鳳凰區에서 열린 만인대회에서 규찰대와 민병은 '反共救國團' 36명을 총살시켰다. 槐塘區의 芳塘公社에서도 7월

56)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 128.

57)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 129.

58)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p. 129-130.

5일 공사 간부와 규찰대 책임자의 지휘 아래 구금되어 있던 5명이 비판투쟁대회 이후 총살당했다.[59]

이런 가운데 전주 대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일이 발생했다. 1968년 7월 3일 당 중앙은 중공중앙·국무원·중앙군위·중앙문혁의 연명으로 광서 지역에 대해 무장투쟁의 정지를 명령한 포고를 내렸다. 포고에서 당 중앙은 "최근 2개월 동안 광서의 柳州·桂林·南寧地區에서 중국의 흐루쇼프를 우두머리로 한 당내 최대의 주자파 및 광서에서의 그 대리인, 반역자, 간첩, 반혁명분자와 개조하지 않는 지주·부농·반혁명분자·악질분자·우파분자가 일부 군중을 속이고 일련의 '반혁명사건'을 획책하고 있다"고 했다.[60] 앞에서 언급했듯이, 1967년 봄 이래 당 중앙은 문혁의 대중조직 간 경쟁이 무장 투쟁의 '내전'으로까지 악화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명령과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1968년 봄 광서 전주현의 사례에서 보듯이, 당 중앙의 명령은 관철되지 않았고 파벌주의 문제는 '전면 내전'의 극단적인 형태로 또 다시 장기화될 조짐을 보였다. 결국 毛澤東을 비롯한 당 중앙 지도부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랐다. 혁명위원회의 인선을 둘러싼 파벌 간 정치 갈등과 무력 항쟁은 이제 '소련 수정주의·미 제국주의·국민당 잔당 세력 및 완고한 계급적 적'과 특정 파벌 세력이 서로 연계해서 꾸미고 있는 '반동' 활동이 되었다.

이 포고는 당시 毛澤東이 북경에서 광서자치구혁명위원회주비소 조장 韋國清을 접견하고 3일 뒤에 나온 것으로, 毛澤東이 제안하고 周恩來가 주관하여 입안한 것으로 알려졌다.[61] 결과적으로 이 포고는 韋國清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毛澤東이 포고를 통해서 광

59)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p. 129-130.
60) 「中共中央·國務院·中央軍委·中央文革布告」(1968.7.3.), CCRD 수록.
61) 申曉雲, 앞의 논문, p.173.

서의 '反韋國清'파인 '조반대군'에 대해 '죄'를 선고한, 즉 '조반대군'에 대한 무장 '토벌'을 동원한 포고에 다름 아니었다.[62] 포고는 광서문제를 겨냥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새로운 권력 재편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전국의 다른 지역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 '7·3 포고'가 나온 후 북경에 있던 韋國清은 이를 즉시 광서자치구에 전달했고 곧바로 광서 각지에 전달되었다.

전주현 혁명위원회는 7월 8일 '7·3 포고' 경축 대회를 열고, '계급적 적'에 대한 절멸적인 공격을 지시했다. 혁명위원회 주임은 '7·3 포고'의 관철은 곧 "毛主席에 대한 충성을 가늠할 수 있는 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7월 24-25일 현 혁명위원회는 毛澤東·광서혁명위원회주비소조·광서군구에 "'7·3 포고'의 관문을 넘을 것을 다짐하는" '決心書'를 쓰기도 했다.[63]

포고를 받은 현 혁명위원회는 즉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를 위해 대량의 선전대가 조직되었고 포고를 선전하기 위한 각종 회의가 수 천 차례 열렸다. 소위 "모택동사상을 학습한다"는 명목으로 36만 명 이상이 이 문제와 관련한 '교육'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각지에서는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 각종 비판투쟁대회가 열렸고 수 십 만 명의 사람들이 대회에 참가해야 했다. 비판투쟁대회에서 혹독한 박해를 받은 '계급적 적'이 2천 명이 넘었고 '反共救國團', '反共救國支隊' 등 각종 '반혁명' 조직도 속속 '적발'되었다.[64] 당시 전주현에서 이에 연루되어 사망한 사람만 1638명에 달했다. 이 수치는 전주현에서 문혁의 폭력에 의한 피해자 중 84.6%에 해당하는 규모였다.[65] 다시 말해서, 전주현의 문혁 폭력에 의

62) 申曉雲, 위의 논문, pp. 173-174.

63)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 130.

64)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p. 130-131.

한 사망자 사건은 거의 대부분 1968년 혁명위원회가 수립된 이후에 발생했다.

'7·3 포고' 이후 전주현 관할 농촌 지역에서 함부로 사람을 체포·감금·살해하는 사건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현의 혁명위원회는 "정확한 궤도에서 운동을 지도하라"고만 할 뿐, 학살을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66] 오히려 인민공사와 같은 집단생산 체제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거나, "계림전구의 무장 투쟁은 국민당과의 전쟁이 아니라 파벌 간 투쟁이다"와 같이 현의 공식 설명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계급적 적', '악질분자의 우두머리'라는 딱지를 붙여 처형했다.[67] '7·3 포고'는 대립파 조직을 '합법적'으로 절멸시키는 '寶劍'이 되었다. 9월 15일 현의 '연지'측은 300여 명의 간부와 '조반대군' 지도부를 "주자파·반역자·간첩·국민당 잔당 세력과 악질분자"라는 명목으로 고깔을 씌워 조리돌림 시켰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사망했다. 9월 23일 현 혁명위원회는 唐述介, 廖顯德, 唐定國, 蔣廷佑 등 '조반대군' 지도부 23명을 '현행 반혁명분자'와 '악질분자'로 '연지'측 감옥에 수감했다.[68] 이후 전주현의 혁명위원회는 "계급 대오를 순결하게 한다"는 명분 아래 인민공사 체제를 개혁하고 각급 기관의 많은 간부를 '5·7 간부학교'에 보내는 등 전주현의 권력 구조를 공고히 해나갔다.[69]

---

65)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 131.

66)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 130.

67)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 131.

68)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 131.

69)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縣"文革"大事記」,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9卷(전자책), pp. 131-132.

4.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문혁 시기 전주현에서는 1968년 5월 현의 새로운 권력 기구인 혁명위원회가 수립된 직후 파벌 간 무력 항쟁이 '전면 내전'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관할 농촌 지역에서 1600여 명이 집단 학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현에서 문혁에 의한 폭력으로 사망에 이른 피해자는 모두 2156명으로 대부분의 희생자가 1968년 5월 이후에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혁 시기 폭력에 의한 사망자 수의 전국 상황과 거의 궤를 같이 한다.[70] 요컨대, 광서 전주현 역시 문혁의 폭력에 의한 사망자는 운동 초기의 홍위병이나 조반파 운동에 의한 것도, 또 1967년 '1월 탈권' 이후 격화되는 대중조직 간 무력 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1968년 파벌 간 무력 항쟁이 수습되고, 새로운 권력기구인 혁명위원회가 성립되는 직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학살이 자행된 곳은 파벌 간 무장투쟁이 격렬하게 진행된 지구나 현의 행정 소재지에서보다는 관할 농촌 지역에서 광범하게 이루어졌다. 학살의 피해자들은 현의 권력을 놓고 경쟁했던 대립파 성원들, '四類分子'로 분류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 또 현 혁명위원회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비무장 상태였으며 군중이 참여한 대규모 비판투쟁대회에 참가한 이후 처결되었다.

학살의 직접적인 가해자들은 현과 각 구·공사의 간부와 민병 등 무장세력이었다. Yang Su는 이것을 기층 간부들과 민병 등이 공동체 내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설령 당시 당 중앙이나 자치구에서 전주현의 양대 파

70) Andrew G. Walder, *China under Mao: A Revolution Derailed,*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p. 276.

벌 간 무장 투쟁과 특정 집단에 대한 살해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에서 '학살'이 정당화 되어 그 행위를 촉진시킨 데에는 '反共救國團'과 같은 '반혁명' 조직의 존재와 '조반대군'과의 관계 등을 실제화한 당 중앙과 자치구의 위로부터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연지'와 '조반대군' 간의 '전면 내전'을 가져온 것은 '배타적' 혁명위원회라고 하는 권력 구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는 문혁 파벌주의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당 중앙이 지방 문혁과 대중조직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전주현의 대학살은 당 중앙과 자치구, 기층 그리고 대중조직 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억압적인 정치 폭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Song YongYi, Chinese Cultural Revolution Database (Published by Universities Service Centre for Chinese Studies, 2006(Second Edition).

中共廣西壯族自治區委員會整黨領導小組 編, 『文革機密檔案-廣西報告』, 明鏡出版社, 2014.

宋永毅 主編, 『廣西文革機密檔案資料』 1卷, 7卷, 19卷, 國史出版社, 2016, 2017.

全州縣誌編纂委員會, 『全州縣誌』, http://lib.gxdqw.com/view-c45-5.html

구소영, 「문화대혁명 시기 농촌의 파벌투쟁-湖南省 道縣을 사례로」, 『인문연구』 79, 2017.

申曉雲, 「文革中槍桿子裡面出革委會-廣西 "武鬥" 眞相」, 『當代中國研究』 20, 2013.

Donald S. Sutton, "Consuming Counterrevolution: The Ritual and Cultural of Cannibalism in Wuxuan, Guangxi, China, May to July 1968",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7, 1995.

벤자민 발렌티노 지음, 장원석・허호준 옮김, 『20세기의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當代中國』叢書編輯委員會 編, 『當代中國的廣西』, 當代中國出版社, 1992.
鄭義, 『紅色紀念碑』, 華視文化公司, 1993.
宋永毅, 『文革大屠殺』, 開放雜誌社, 2002.
譚合成 著, 『血的神話: 公元1967年湖南道縣文革大屠殺紀實』(第2版), 天行健出版社, 2012.
丁凱文, 『解放軍與文化大革命』, 明鏡出版社, 2013.
賴兆年, 「廣西與越南抗法戰爭研究(1950-1954)」, 廣西民族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
谷川眞一, 『中國文化大革命のダイナミクス』, 御茶の水書房, 2011.
楊海英, 『ジェノサイドと文化大革命: 內モンゴルの民族問題』, 勉誠出版, 2014.
Yang Su, Collective Killings in Rural China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Andrew G. Walder, "Rebellion and Repression in China, 1966-1971", Social Science History, vol 38, 2014.
_____, China under Mao: A Revolution Derailed,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OSGeo(Open Source GeoSpatial) 中國中心, http://www.osgeo.cn/map/m029b (검색일 2018.1.2.)

(**투고일**: 2018. 2. 11. **심사완료일**: 2018. 3. 15. **게재확정일**: 2018. 3. 21.)

이름: 구소영
소속: 경북대학교 사학과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전자우편: ppotto740903@hanmail.net

[Abstract]

Massacre in Guangxi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 Taking Quanzhou County as a Case

Ku, So-Young

In this study, I examine the nature of the violence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by taking Guangxi Quanzhou as a case. Massacres in Quanzhou occurr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new power structure(the Revolutionary Committee) in 1968. It shows a different view from the existing ones on violence of the Cultural Revolution, which were mostly caused by violence from the below by the Red Guards and the Revolutionary Rebels, or armed struggles between the two factions.

Massacre in Quanzhou was closely related to the power structure of the County which the 'exclusive' Revolutionary Committee by one faction was established. Besides, the justification of the massacre and promoted it was an instruction from the central and autonomous regions of the Party, which fabricated 'counter-revolution' organizations and linked them with rival factions to actualize 'enemies'. In this regard, massacre in Quanzhou is the result of repressive political violence i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 Central and the Autonomous Region, the prefecture and the subordinate organizations, and the mass organizations.

Key Words: the Cultural Revolution, Guangxi Quanzhou County, massacre, violence, the Revolutionary Committee, anti-Communist Party Patriotic Army